

# “반도체 붐, IT버블 때와 다르다”

박현주 미래에셋 그룹 회장 겸 글로벌 전략가(GSO·사신)가 글로벌 증시를 뒤흔들고 있는 ‘반도체 고점론’에 대해 “시장의 지나친 우려에 기반한 일시적 회의론”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공지능(AI) 혁명은 새로운 문명을 만드는 초기 단계이며, 반도체 수요는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단독 인터뷰

“삼전닉스 실제로 엄청난 이익 올려” 고점론 반박  
최태원 SK 회장도 “반도체 부족, 내년엔 더 심각”

그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 낙관론을 폈다. “현재의 비관론은 반도체 가격 급등에 따른 수요 위축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일시적 가격 등락은 있겠지만 공급량과 가격이 밸런스를 잡아가며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향후 완전자율주행(FSD), 범용인공지능(AGI) 전환, 피지컬 AI 도입뿐만 아니라 우주 개발 경쟁, 아웃(정점 통과) 우려를 꺾으면서, 이는 단기 시각이 반영된 자연스러운 ‘숨 고르기’라고 선을 그었다.

코스피와 일본 닛케이225지수 등 아시아 증시 급락에 대해 거품이 붕괴하는 것이 아닌,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풀이한 대목이다. 박 회장은 “짧은 기간 한국, 일본의 반도체 관련주가 급등한 데 따른 작용과 반작용일 뿐”이라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일본 키옥시아 등이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흔들림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중국 창신메모리 테크놀로지(CXMT) 등 경쟁사 추격

우려에 대해선 “범용 메모리 제품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중국 내 수요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지금 상황은 2000년대 초 인터넷 버블이나 최근 2차전지 급등락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면서 “현재 반도체 기업들은 실제로 엄청난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태원 SK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AI반도체 부족이 내년엔 더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지난 15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공급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지만 수요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말했다. 안병준·추경아·이동인 기자

# 실버머니 4천조 시대 ‘검은 손’ 먹잇감 됐다

‘위기의 실버머니’ 심층분석  
고령층 사기 10년새 2.7배로  
연간 6만명이 노후자금 털려

지난해 2월, 60대 장 모씨는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약속하는 한 투자설명회를 방문했다가 노후 자산을 잃는 피해를 봤다. 업체 측은 “원금을 전액 보장하면서 매일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며 장씨를 현혹했다. 초기 테스트 삼아 투자한 100만원에 하루 3000원의 수익이 붙었다. 장씨는 이에 정기예금 5000만원을 해지해 투자했다. 투자 1년 만에 장씨의 계좌상 평가금액은 1억원을 돌파했으나, 이는 가상의 수치에 불과했다. 장씨가 투자 원금을 회수하려 하자 업체는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출금할 수 있다”거나 “금융당국이 심사를 진행 중”이라며 출금을 미루다 결국 연락을 끊었다.

60대 이상 고령층 자산이 40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노후 자금을 노린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 보이스피싱 위주였던 범죄 수법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 기획부동산, 연애빙자(로맨스 스캠) 등 고령층 맞춤형으로 진화하며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19일 경찰청과 검찰청 등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사기 범죄 피해자는 총 44만341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인 2014년(24만4008명) 대비 81.7% 급증한 수치다. 특히 같은 기간 61세 이상 고령층 피해자는 2만3088명에서 6만1582명으로 166.7% 폭증하며 전체 평균 증가율을 두 배 이상 크게 웃돌았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노후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은 한 번 범행에 노출되면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고령층 대상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국가 차원에서 인식하고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이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과 피해 예방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자경·문소정 기자

# 보복 또 보복...美·이란 전면전 위기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미군 사망에 따른 대규모 보복 공습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 중단 선언으로 전면전으로 확산 가능성이 커졌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미 동부시간 오후 6시 미군은 군 통수권자의 지시에 따라 이란을 대상으로 새로운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지난 11일부터 이란까지 매일 대규모 공습을 퍼붓고 있다.

특히 이란 공습은 전날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으로 요르단의 미군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데 따른 보복 조치다.

이에 맞서 이란은 미국에 협조하는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카젠 가리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종전 MOU에 따른 이란의 의무 이행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뉴욕 임성현 특파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한국서 첫 개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개회식이 열리는 벡스코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로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196개국 중 선출된 21개 위원국을 중심으로 세계유산 논의를 진행한다. 한국에서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1988년 협약 가입 이후 처음이다.

부산 김호영 기자

# “레버리지 상폐 어려워... 괴리율 관리시간 확대”

김용범 靑실장, 추가대책 예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변동성 완화 방안으로 유동성공급자(LP)의 해지 거래 시간 확대를 제시했다. 동상 LP는 괴리율을 관리하기 위해 기초자산을 매매하는 이른바 헤

지 거래를 장 마감 전 30분 동안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를 보다 넓은 시간대로 분산해 종가 무렵의 변동성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김 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레버리지 ETF 폐지 여부에 대해선 “이미 관련 ETF 상품에 10조원 이상(투자금) 형성돼 있는데 상장폐지를 하게 되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며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융당국에서 내놓은 예탁금 기준 상향 등 레버리지 ETF 보완 조치를 언급하며 “시장에서 제기했던 문제를 상당폭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통상 장 마감 30분 전에 이뤄지는 ETF의 시장 가치와 순자산가치 간 괴리율 관리 시간을 2시간 정도로 늘리는 때도 물론 집중 완화 방안 등을 언급했다.

한편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금융위원회·금융감

사점닉스 레버리지 가격 변동폭이 본주(本株) 변동폭보다 더 벌어져 있는 비율을 뜻한다. 괴리율이 커질수록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독원은 20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레버리지 ETF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수현 기자

# 이효석문학상 대상에 박솔미 ‘사과’

올해 이효석문학상 대상 수상작으로 박솔미 작가(사진)의 소설 ‘사과’가 선정됐다. ‘사과’는 중심인물 애리가 ‘잠’을 자신만의 장소로 삼으며 삶에서의 정주와 이동을 묻는 작품이다.

2026년 제26회 이효석문학상 심사위원회는 “흔들리는 창 너머의 멀어지는 풍경과 멈춰 서 있는 풍경 모두에 대한 이야기다. 그 두 개의 풍경이 사실은 동일한 세계에 속에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딘지 편안해진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A27면 김유태 기자

